



박소현의 섹.시.토.크

남편이 수영을 가르키기 시작했다. 아내인 K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더 기를 거야, 더 기르면 편찮아 질 거야, 과도기니까 좀 참아."



K의 남편은 유난히 털이 나지 않는 얼굴과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길러왔자 풀이 날 리 없었다. 열심히 길러도 철사를 꽂아놓은 것처럼 뻣뻣하고 불쌍사 나온 수영만 자라 꼭 지방 관아의 이방처럼 사람만 가벼워 보일 뿐이었다.

"얼굴이 그게 뭐야? 수영 좀 깎아."

보다 못한 K가 지나가는 말로 한 마디를 던졌을 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왜 보기 싫어?"

그런데 표정이 은근히 밝다. 아내가 자신의 수영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는 눈치였다.

"당연히 보기 싫지. 그럼 그게 보기 좋겠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턱을 자랑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수영 깎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

K가 채근하자 그제야 남편은 슬쩍 진실을 털어놓았다.

"턱수영 기른 남자가 썩시하다며..."

그제야 생각이 났다. 얼마 전 TV를 보다 턱수영을 멋있게 기른 남자를 향해 썩시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적잖은 자극이 되었던 모양이다.

"그건 수영이 어울리는 사람한테나 해당하는 말이지, 당신처럼 고양이수영 나는 사람은 턱수

영이 안 어울려. 아니 턱을 덮을 만큼 기르기도 힘들잖아."

"당신이 몰라서 그런데 나도 턱수영 어울리는 얼굴이야. 두고 봐,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남편은 결코 수영을 깎을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 K는 끔찍했다. 남편이 턱수영 비슷하게라도 가지려면 적어도 일년은 저 이상한 수영을 달고

결혼 십 년 동안 처음 대하는 모습이었다. 웃입는 스타일도 조금씩 달라졌다.

원래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엄전하게 입고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범저지 모자를 쓰고 야전 점퍼 분위기의 옷들을 사들였다.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K는 그 모든 것이 수영을 기르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편은 턱에 난 수영을 만지면서, 자신의 몸에서 끝없이 생성되고 있는 남성 호르몬의 존재를 각인하는 것 같았다.

결국 K는 남편에게 더 이상 수영을 깎으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서른하늘의 나이에 마치 막으로 부러 대는 호기를 그냥 허락하기로 했다.

비록 부부동반 외출은 줄어들었지만 K는 같이 외출하고 싶은 매끈한 남자와 지지분한 삼손 사이에서 가까이 삼손을 택했다.

<연예 칼럼니스트>

야성을 찾아서

리빙 센스

못 박기

벽에 못질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죠? 땀겨져 나오고, 힘을 주면 구부러지는 못... 종이 한 장만 있으면 간단히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점은 종이 시멘트 벽에 못질을 하면 땀이 땀겨져 나오거나 뼈뺀 지게 박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종이를 여러 번 접은 다음 그 위에 못을 박아보세요. 구부러지지 않고 못이 박힙니다.

▲비누 땀이 잘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비누를 몇 번 문질러 준 뒤 못질을 하면 좋습니다. 흠집이 적고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종이테이프(마스크 테이프) 석고보드를 사용한 벽에 못을 박으면 석고가 갈라지고 떨어져 보기에 좋지 않죠. 이때 종이 테이프를 사용해 보세요. 벽에 열심자형으로 마스크 테이프라고 하는 종이 테이프를 붙여준 뒤 테이프가 교차하는 지점에 못을 박아 보세요. 깔끔하게 못질이 끝납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5일(음 12월 18일 甲子)

Table with 12 rows of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검색절정 키워드

가수 故유니 1주기 등 스타 요절 이목 끌여

스타들의 요절이 이번 주 네티즌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21일 가수 유니의 1주기를 맞아 우울증과 악플에 시달리다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끊었던 고인의 홈페이지에는 "악플을 달았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행복하게 웃는 모습만 기억할게요" 등의 추모글이 잇따랐다.

다빈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영화배우 강희의 데뷔작 '내 사랑 유리아'가 개봉을 앞두면서 팬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할리우드에서도 슬픈 소식이 전해져왔다.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인상깊은 연기를 펼쳤던 히스 레저(28)가 지난 2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많은 팬을 충격에 빠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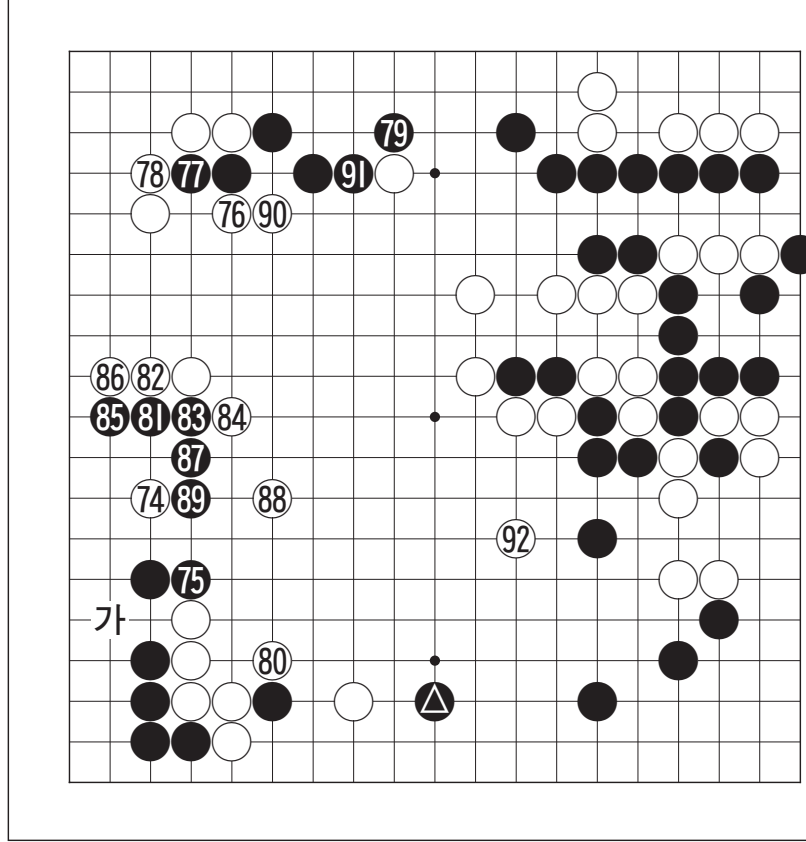
일 만에 발생한 사건이라 안타까움이 더했다.

네티즌은 "훌륭한 배우가 허무하게 죽다니 너무 안타깝다", "천재는 요절한다고 하던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네티즌은 장국영, 이은주, 리퍼피나, 히데 등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요절스타 들을 추모하며 화려한 이면 뒤에 숨겨진 쓸쓸한 스타들의 모습에 관심과 안타까움을 보였다.



지난해 우울증과 악플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수 유니.



전5회 KBC시상비 손따라 둔 실착 6보(74~92) 흑 ▲와 백 74는 맞보기로 마지막 남은 큰 곳이다.

바둑소식 이창호와 윤준상 명인전 격돌 이창호와 윤준상 9단이 국내 최대 규모의 기점인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에서 격돌한다.

굿모닝 잉글리쉬 <1084> Am I allowed to stay out past 10? 10시 넘어서 귀가해도 됩니까?

오하오우 니혼고 <1084> 私寫眞寫(しゃしんうつ)り悪いから. 난 사진이 잘 안나오니까

니하오 쑹구워 <61> 为我们的友谊, 干杯!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건배!

한자 이야기 <671> 刹那(찰나) 절찰, 어찌나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우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